

“너희가 미쳤구나”인가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인가?

— 고린도전서 14:20-25의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의 번역 재고 —

권영주*

1. 서론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적인 논지는 분명한 데 반해 20-25절은 난해한 해석학적 문제들로 가득하다. 그 중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다뤄야 할 해석학적 문제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방언보다는 예언할 것을 주문하며 그 근거로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의 원래 상황과 바울이 직면한 목회적 상황 간의 호응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울의 원리(22절: 방언은 불신자에게 유익하고 예언은 신자에게 유익하다)와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예시(23-25절: 불신자에게 유익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간에 논리적 균열이 감지된다. 셋째, 신자들이 모여 방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상되는 불신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23절에서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다.

본고는 이 세 가지 해석학적 문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며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의 한글 번역이 재고되어야 함을 논증할 것이다.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번역¹⁾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불신자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본고는 불신자들의 긍정적 반

*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초빙교수. answer.is@gmail.com.

1) 앞으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한국어 번역은 『개역개정』을 따른다.

응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논지와 부합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²⁾ 여기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기대어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본문 내외적 증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바울의 이사야 사용

바울은 당면한 신학적·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구약의 증거 본문을 제시할 때 이사야를 종종 사용했다.³⁾ 그는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주로 히브리어 성서(MT)가 아니라 칠십인역(LXX)을 사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4:21에서 사용된 이사야 구절의 경우 칠십인역과도 일치하지 않고,⁴⁾ 히브리어 성서와 비교해도 차이점이 다수 포착된다. 갈랜드(David E. Garland)는 다른 주석가들의 의견을 두루 참조하여 다음 아홉 가지 차이점을 지적했다.⁵⁾

1. 바울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의 위치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다른 방언”이라는 표현이 앞에 위치하도록 만들었다.
2. “다른 방언”이라는 표현이 전치됨으로써 고린도교회의 상황과 좀 더 유사하게 되었다.
3. “내가 ... 말하노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칠십인역(화자가 앗시리아 침략자들)보다는 히브리어 성서(화자가 주님)에 더 가깝다.
4. 바울의 본문에서는 구약 원문에 등장하는 “이것이 안식이요, 곤비한 자에게 주는 안식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고린도교회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2)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JSNT* 27:4 (2005), 417-446;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7), 238.

3) Hon Lee Kwok, “Use of Isaiah in the Pauline lett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Self-conception of Being an Apostle to the Gentile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09).

4) 이 때문에 바울의 구약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연구서를 남긴 스탠리(Christopher D. Stanley)는 “고전 14:21의 표현과 칠십인역 본문과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는 것은 바울의 인용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Christopher D. Stanley, *Paul and the Language of Scripture: Citation Techniqu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SNTSMS 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98.

5) David E. Garland,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646-647. 아래 아홉 가지 차이점은 갈랜드(David E. Garland)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용, 요약, 풀이한 것이다. 구약 본문과 바울의 본문과의 차이점에 대한 다른 논의를 보려면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00), 1120을 참고하라.

5. 바울은 οὐκ 대신에 οὐδ' οὕτως를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6. 바울은 구약 원문에 등장하는 ακούειν 대신 복합동사 εισακούειν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함의한다.

7. 바울은 부정사 대신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그들이 듣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약 원문의 개념을 제거한다. 이는 바울의 목회적 상황에 맞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린도교회의 경우 신자들의 방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방언을 듣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바울은 οὐδ' οὕτως라는 표현을 첨가하는데 이는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바울의 상황에 이를 적용해 보자면, 불신자들이 듣고 주님께 반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 “다른 방언”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9. 바울은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첨가하였다.

갈랜드가 지적한 차이점 중 현재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3, 4, 5, 8번이다.

먼저 3, 4번을 살펴보자. 이사야 원문의 경우 히브리어 성서와 칠십인역 모두 “이것이 안식이요, 곤비한 자에게 주는 안식이라”는 메시지의 변용된 표현이 각각 등장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어가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하나님이고 칠십인역에서는 앗시리아 침략자들이지만, 둘의 공통점은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하지만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완전히 삭제한다.⁷⁾ 이 같은 변화는 이해할 만한 것인데, 바울의 목회적 상황에서 방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청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방언을 자제해야 하는 일차적 이유는 불신자들이 방언의 내용을 이해하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방언의 내용을 애초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삭제함으로써 그의 목회적 상황과 부합한 조언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방언을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그것이 이해 불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는 바울의 인용문과 이사야 원문과의 차이점이 관찰되는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5, 8번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이다.

6)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440.

7) B. C. Johanson, “Tongues, A Sign for Believers?: A Structural and Exegetical Study of I Corinthians XIV. 20-25”, *NTS* 25 (1979), 182.

5, 8번의 변화를 보면, 바울은 히브리어성서에 나온 $\sigma\upsilon\lambda\lambda\alpha$ 나 칠십인역에 나온 $\text{o}\ddot{\upsilon}\kappa$ 와 같은 단순 부정어 대신 (BDAG에 따르면) “not even thus”나 “not even then” 의미를 지닌 $\text{o}\ddot{\upsilon}\delta'$ $\text{o}\ddot{\upsilon}\tau\omega\varsigma$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단순 부정어를 사용했다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했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text{o}\ddot{\upsilon}\delta'$ $\text{o}\ddot{\upsilon}\tau\omega\varsigma$ 를 사용함으로써 방언의 불가해성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부각시킨다. 『개역개정』 번역은 이러한 뉘앙스를 잘 살리고 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고전 14:21).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방언과 같이 비범한 방식을 통해 소통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방언이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14:22에 등장하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에서 표적은 ‘심판’의 표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⁸⁾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사야 원문에서는 다른 방언을 듣는 대상이 신자인 “이 백성”인 반면, 바울의 목회적 상황에서 방언을 듣는 대상은 불신자가 된다. 전통적 주석가들은 방언 수신자의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방언은 불신자들을 회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⁹⁾ 필자 역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대표적 인물인 체스터(Stephen J. Chester)의 주요 논지를 살펴

8) J. P. M. Sweet, “A Sign for Unbelievers: Paul’s Attitude to Glossolalia”, *NTS* 13 (1967), 242; D. A. Carson, *Showing the Spirit: A Theological Exposition of 1 Corinthians 12-14*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113-114; David E. Lanier, “With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1 Cor 14:20-22 and Isa 28:11-12”, *CTR* 5 (1991), 281; Ben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1 and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285; Richard A. Horsley, *1 Corinthians*, ANTC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85-186; Marion L. Soards, *1 Corinthians*, NIBCNT (Peabody: Hendrickson, 1999), 293-294; Raymond F. Collins, *First Corinthians*, SP 7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508; Gregory J. Lockwood, *1 Corinthians*,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0), 490;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126; David E. Garland, *1 Corinthians*, 650; Alan Johnson, *1 Corinthian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265.

9) P. Roberts, “A Sign — Christian or Pagan?”, *ExpTim* 90 (1978), 200-201;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438-445.

며¹⁰⁾ 그가 놓친 본문 내외적 증거들을 첨가할 것이다.

체스터는 방언의 수신자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 뒤, 이사야의 원 문맥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바울이 인용한 내용을 불신자들이 아닌 고린도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8:11-12의 앞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다(사 28:7). 이로 인해 하나님은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은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과 같이 미숙한 어린 아이 정도만 남게 되었다(사 28:9).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갓난아기들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무의미한 표현들이다. 실제로 이사야 28:10은 원문으로 읽으면 “의미 없는 단어들의 조합”에 가깝다.¹¹⁾ 체스터는 이사야의 원 문맥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수반된다면 바울의 이사야 인용 의도가 더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그들이 이사야의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과 같은 미숙한 자들이 되지 말고 성숙한 자들로 남길 원하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의 상황에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방언이 아닌 예언을 추구하는 것이다. 방언은 불가해한 것이기 때문에¹²⁾ 다른 신자들이 들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성숙한 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 해석에 비해 두 가지 강점을 지닌다. 첫째, 새로운 해석은 전통적 해석에 비해 이사야 28:11-12와 그 주변 문맥을 더 충실히 반영한다. 전통적 해석은 방언을 듣는 대상을 23절에 나온 불신자(“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상정한 반면, 새로운 해석은 방언을 듣는 대상을 20절에 등장한 신자(“형제들아”)로 가정한다. 위 단락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사야 원문에서 의미 없는 단어들을 듣게 되는 대상은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인 미숙한 백성, 즉 신자임을 고려한다면 이사야의 원 문맥을 더 충실하게 반영한 것은 전통적 해석보다는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절 역시 성숙과 미성숙의 도식을 유지하고 있음(“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을 감안한다면, 20-21절이 이사야의 원 문맥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 해

10) 아래 세 단락의 내용은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442-445의 주요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11)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240.

12) 불가해성은 방언의 일반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고린도교회에서 감지된 국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 2:4-13을 보면, 방언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석의 경우 20절에 대한 주해를 거의 하지 않고 21절과 22-25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새로운 해석은 22절에 나타난 방언의 원리를 보다 잘 설명해 준다. 22절에서 바울은 방언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전통적 해석의 경우 방언의 원리의 후반부(“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으나 전반부(“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반면, 새로운 해석의 경우 20-21절에서 성숙한 신자는 방언보다 예언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체스터가 제시한 해석이 이사야와 고린도전서 본문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지만 그가 간과한 다른 증거들이 있다. 체스터는, 바울이 이사야 본문을 불신자가 아닌 신자(고린도교인)를 향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사야의 원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훌륭하게 논증했지만 고린도전서 자체의 내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20-25의 전 문맥을 보면, 방언은 신자들을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내내 논증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신자들의 은사임이 분명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2절) 자기의 덕만 세울 뿐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4절). 따라서 방언은 신자를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다.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조언으로 짐작하건데 방언은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은사이다(5절). 하지만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13절) 신자를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다.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볼 때 방언이 신자를 위한 은사임을 알 수 있다(6절). 하지만 방언이 “뜻 없는 소리”의 연속이라는 점에서(10절) 신자를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바울의 권면 속에 방언에 대한 가르침도 포함된 것을 볼 때 방언은 신자를 위한 은사임이 분명해 보인다(12-13절). 하지만 방언을 함으로써 영으로 기도할 수 있으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14절) 신자를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고린도전서 14:1-19는 방언이 신자에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 문맥을 고려한다면 20-21절에서 바울의 조언은 방언에 대한 불신자들의 태도가 아닌 신자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이다.

23절에 있는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의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논문의

종반부에서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답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관찰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서 방언의 원리(“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를 기술할 때 등장하는 표현인 ‘표적’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통적 해석에서는 23절에 나온 불신자들의 반응을 근거로, 방언을 심판의 표적, 즉 온전히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해석은 이사야의 원 문맥과도 부합하지 않고 현재 본문의 전 문맥(고전 14:1-19)의 논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사야의 원 문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그것을 고린도교회의 상황에 적용시킨 바울의 의도는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 고린도교인들에게 일정 부분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그것은 신자를 위한 충분한 표적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현재 본문의 전 문맥에서 이미 밀도 있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22절에 나타난 방언의 원리의 후반부(“방언은 ...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신자들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도 방언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정 부분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는 무언가일 것이다. 다음 두 장에서 더 자세히 논증하겠지만 표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온전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22절과 23-25절과의 관계: 원리와 예시의 불일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 제시한 원리(22절)와 그 예시(23-25절) 간에 논리적 균열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22절에서 바울은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신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원리를 천명한다. 그리고 이어 23-25절에서 그 예시를 제공하는데, 방언에 대한 예시는 불신자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궁할 만하지만, 예언에 대한 예시는 신자의 반응을 보여주어야 마땅한데 불신자의 반응을 담고 있어서 해석자들의 의문을 자아낸다. 이러한 해석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다양한 제안을 해 왔다.¹³⁾ 다양한 견해 중 현재 연구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두 가지 입장을 비교적 자세로 살펴보려 한다.

13) 다양한 제안의 주요 논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자료로는 D. A. Carson, *Showing the Spirit: A Theological Exposition of 1 Corinthians*, 109-114;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123-1126이 있다.

먼저, 그루뎀(Wayne Grudem)은 전통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를 제시했다.¹⁴⁾ 그는 해석의 관건이 22절의 ‘표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σημεῖον이라는 단어가 구약(칠십인역)과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σημεῖον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칠십인역의 경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σημεῖον이 주로 심판의 표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방언은 …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 ‘표적’은 심판의 표적, 즉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22절의 ‘표적’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신약의 용례로 판단해야 한다. 22절의 ‘표적’은 21절의 이사야 인용의 논의에서 파생된 원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쓰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단어 자체는 이사야의 해당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바울이 신약 기자로서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루뎀은 σημεῖον의 신약 용례도 검토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모두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라 22절의 표적을 심판의 표적, 즉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필자는 그루뎀과 달리 22절의 ‘표적’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루뎀의 신약 용례 도식을 따른다고 해도 가능한 해석이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긍정적’ 표적이라는 것의 뉘앙스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가 이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의 원 문맥과 고린도전서 14:1-19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2절의 ‘표적’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은 표적이라고 —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 일정 부분 소통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회심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루뎀은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표현에서 ‘표적’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성경의 용례를 검토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긍정적 표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본문의 후 문맥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30절을 보면 예언은 계시(ἀποκαλυφθῆναι)를 통해 이루어진다.¹⁶⁾ 계시를 가리키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보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14) Wayne Grudem, “1 Corinthians 14.20-25: Prophecy and Tongues as Signs of God’s Attitude”, *WTJ* 41:2 (1979), 389-392.

15) Wayne Grudem, “1 Corinthians 14.20-25: Prophecy and Tongues as Signs of God’s Attitude”, 393-396.

16) 여기서 그루뎀은 해당 구절을 29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성경 인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다.¹⁷⁾ 다시 말해 예언의 작동 방식을 고려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혹은 역사를 수반하는 긍정적 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22절의 예언의 원리와 24-25절의 예언의 예시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균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루뎀은 예언이 기본적으로 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그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교회를 “방문한 외부자들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¹⁸⁾ 예언의 원리와 예시에 대한 그의 해석은 온당해 보인다.

요약하자면 그루뎀의 해석은 방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예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루뎀의 해석의 가장 큰 약점은 한 구절에 쓰인 ‘표적’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예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자 혹은 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단어의 의미를 이토록 짧은 맥락 속에서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조헨슨(B. C. Johanson)은 해석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¹⁹⁾ 조헨슨 역시 필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σημεῖον이라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²⁰⁾ 이 때문에 조헨슨은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긍정적’ 표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언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긍정적’ 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¹⁾ 하지만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긍정적 표적이라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23절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방언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 긍정적 표적이라면 대체 왜 그들이 방언을 들었을 때 부정적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헨슨은 흥미로운 주장을 한다. 22절에 나온 방언에 대한 원리는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고린도교인들의 입장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²²⁾ 이렇게 되면 22절과 23절에 나온 방언에 대한 원리

17) 그루뎀은 ἀποκαλύπτω라는 동사의 신약 용례를 검토한 뒤 이는 모두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동사가 현재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된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8) Wayne Grudem, “1 Corinthians 14.20-25: Prophecy and Tongues as Signs of God’s Attitude”, 395.

19) B. C. Johanson, “Tongues, A Sign for Believers?: A Structural and Exegetical Study of I Corinthians XIV. 20-25”, 180-203.

20) 로버츠(P. Roberts)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P. Roberts, “A Sign — Christian or Pagan?”, 200을 보라.

21) B. C. Johanson, “Tongues, A Sign for Believers?: A Structural and Exegetical Study of I Corinthians XIV. 20-25”, 193.

22) Ibid.

와 예시 간의 논리적 균열이 봉합될 수 있다. 22절 전반부(“방언은 …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긍정적 표적”)는 고린도교인들의 입장이었고, 바울은 23절의 예시를 통해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긍정적 표적이 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고린도교인들의 입장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다.²³⁾

조헨슨의 주장은 상당히 흥미롭고 매력적이지만 22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고린도교인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조헨슨은 ὡστε가 수사적 의문문을 도입할 때 사용된다는 갈라디아서의 용례(갈 4:16)를 제시했지만,²⁴⁾ 갈라디아서에서는 해당 문장에서 의문문 부호(;)가 사용되고 있으나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는 의문문 부호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고린도전서 자체 내에서도 유사한 용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미진한 용례 하나만을 가지고 2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교인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조헨슨의 해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가 전통적 견해와 달리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필자 역시 표적이라는 단어를 방언과 예언에 적용할 때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예언은 온전히 긍정적인 표적인 반면 방언은 긍정적이지만 불충분한 표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2장에서 이사야의 원 문맥과 고린도전서 14:1-19를 살펴봄으로써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2절과 23-25절의 논리적 균열을 봉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필자는 조헨슨과 의견을 달리 한다. 22절의 전반부가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고린도교인의 입장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고도, 방금 설명했던 긍정적 표적의 뉘앙스 차이로 22절과 23-25절의 관계를 일부 설명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방언은 신의 임재를 감지하게 해 준다는 면에서 불신자를 위한 긍정적 표적이긴 하지만, 불신자들이 그 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치 않은 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mu\acute{\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가 고대 자료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검토하면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한편, 예언의 원리와 예시에 관해서 필자는 그루뎀의 논지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언급하지 않은 본문 내외 증거를 몇 가지 열거하고자 한다. 첫째, 22절 예언의 원리(예언은 ‘신자’들을 위한 긍정적 표적)와

23) Ibid., 194.

24) Ibid., 193.

24-25절 예언의 예시(예언이 ‘불신자’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긍정적 표적)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4-25절이 애초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를 주목하면 쉽게 해결된다. 24-25절의 상황은 신자들이 처음부터 불신자들을 향해 예언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 신자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예언을 하다가 그것을 불신자들이 듣거나 목격하게 되는 경우다. 다시 말해, 예언은 일차적으로 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었고, 불신자들의 회심은 신자들 간의 예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부수적인 것이다. 불신자들의 회심이 부수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이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었다는 의미다.

둘째, 예언이 신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신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그루템은 이와 관련해서 30절을 근거로 들며,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또 다른 본문 내 증거가 있다. 후 문맥인 30절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재 본문에도 분명한 증거가 존재한다. 25절에서 불신자들이 예언을 접하고 난 뒤 그들이 하게 될 고백은 의미심장하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너희”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언을 통해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신자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라는 것이다. 즉 바울에 따르면, 예언은 불신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증명될 정도로 강력한, 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셋째, 예언이 신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불신자들의 반응을 꽤 긴 호흡으로 그린 것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빌링스(Bradley S. Billings)는 최근 출판된 소논문에서 고린도전서 14:20-25가 당시의 예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창문이 된다는 것을 다양한 논거를 통해 입증했다.²⁵⁾ 그의 연구 결과물 중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당시 도시의 삶과 예배가 드러졌던 건물의 구조를 감안한다면 불신자들이 의도치 않게 신자들의 예배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잦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았기 때문에 옆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을 듣거나 보는 일이 빈번했다. 바울이 23-25절에서 가정하

25)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논문 중 관련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를 보려면 Bradley S. Billings, “The *apistoi* and *idiotes* in 1 Corinthians 14:20-25: The Ancient Context and Missiological Meaning”, *ExpTim* 127:6 (2016), 277-285를 참고하라.

는 공간이 밀폐된 트리클리니움(triclinium)이 아니라 비교적 트인 아트리움(atrium)이나 페리스틸리움(peristylum)과 같은 곳이었다면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예배를 손쉽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예언이 신자를 위한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바울이 불신자들의 예상되는 반응까지 챙겼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태도이다.²⁶⁾ 24-25절에서 불신자들의 반응을 긴 호흡으로 다룬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2장과 3장의 논의를 통해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의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몇 가지 얻게 되었다. 첫째, 전통적 해석과 달리 바울의 이사야 인용(21절)이 불신자가 아닌 신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는 22절의 방언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던져 준다. 20-21절을 통해 바울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바는, 방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성숙한 신자라면 예언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언은 신자를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를 기억한다면 22절의 방언의 원리 후반부(“방언은 ...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도 유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충분한 표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방언이 좋은 것이지만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본문의 전 문맥인 고린도전서 14:1-19에서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 셋째, 22절의 ‘표적’을 중의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해석과 달리, 필자는 방언에 대해서도 예언에 대해서도 표적은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방언은 긍정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표적이고 예언은 온전히 긍정적인 표적이다. 이 세 가지 원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요소는 ‘방언이 긍정적이지만 충분한 표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방언이 충분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은 23절의 예시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방언이 긍정적 표적이라는 사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이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이고, 이는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된다.

26) 바울은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목회자였다. 따라서 그의 서신은 순수한 신학서라기보다는 바울이 개척하거나 혹은 직·간접적으로 돌보았던 교회의 상황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기록한 목양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바클레이(John M. G. Barclay)도 유사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존 M. G. 바클레이, 『단숨에 읽는 바울』, 김도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3: “역사학자가 신학자에게 반드시 상기시켜야 할 사항은 바로 바울이 상황 대응적(situational) 사상가라는 사실이다. 그는 의심의 여지없이 신학을 탐구한 사람이지만, 조직 신학자라기보다는 실천신학자에 더 가깝다.”

4.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의 번역 재고

위 단락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이사야의 원 문맥도, 고린도전서의 전 문맥(고전 14:1-19)도, 현재 본문도 방언이 ‘긍정적’ 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한글 성서의 기존 번역은 전통적 해석의 결과(방언은 심판의 표적으로서 부정적인 것)에 기대어 23절의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번역해 왔다. 아래는 주요 번역본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개역개정』)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개역한글』)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저마다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있을 때 보통 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새번역』)

만일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위의 한글 성서 번역이 암시하듯이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부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두 장의 연구를 통해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약 인용과 고린도전서 본문의 의미와 훨씬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긍정적으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간접적인 암시일 뿐, 이 단어가 실제로 당시에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긍정적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수의 학자들 중 일부는 이사야와 고린도전서의 본문 연구를 통해 간접적인 암시만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로버츠(P. Roberts)는 22-23절에 나타난 본문의 의미를 설

명하면서, “나의 가정이 맞다면 이 문장[22절 방언의 원리]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방언은 불신자들이 신의 역사를 확인할 때 구했던 증거이다.”²⁷⁾ 따라서 불신자들은 방언하는 것을 볼 때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You are possessed [μαίνεσθε])”라고 말할 것이다.²⁸⁾ 헤이스(Richard B. Hays) 역시 μαίνεσθε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문화적 상황에서 *mainesthe*라는 동사는 ... 오늘날 번역이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바와 같이 비난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는 그 사람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종교적 황홀경에 빠졌다는 뜻이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일반적 현상이었다.”²⁹⁾ 하지만 로버츠와 헤이스 모두 μαίνεσθε를 긍정적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암시만 제시했을 뿐, 그 단어가 실제로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던 문헌이나 실제 용례를 자세히 검토하진 않았다.

이런 점에서 체스터의 연구는 비슷한 논지를 전개했던 선행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체스터는 μαίνεσθε와 그 동족어(cognate words)가 고대 문헌에서 긍정적으로 번역되었던 실제 용례들을 밀도 있게 제시했다.³⁰⁾ 여기서 그가 제시한 두 가지 증거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가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Phaedrus*)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신의 선물로서 주어진 가장 큰 복들은 *μανίας*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왜냐하면 델피(Delphi)나 도도나(Dodona)의 여자 예언자들은 그들이 *μανεῖσαι*할 때 그리스의 사적 혹은 공적인 일에 있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제정신일 때는 그러한 유익이 아예 혹은 거의 없었다.”³¹⁾ 여기서 *μανίας*나 *μανεῖσαι*는 “제정신”의 반대 의미였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선물”이며 그리스의 유익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디오니소스(Dionysos) 제의와 관련해서 *μαίνομαι* 동사 형태가 등장한다. “파우사니아스(Pausanias)는 디오니소스의 여자 예배자들이 신의 영감에 의해 *μαίνεσθαι*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디오니소스를 경배하는 과정에서 *μαίνονται*된 모든 여성들은 ... 디오니소스의 첫 번째 여자 예언자들이었다.”³²⁾ 여기서 *μαίνομαι* 동사 형태들 역시 부정적 의미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신의 영감”을 통해 나타나거나 신을 “경배”하는 과정에서 과

27) P. Roberts, “A Sign — Christian or Pagan?”, 201.

28) Ibid., 202.

29)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238.

30)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421-428.

31) Plato, *Phaedr.* 244A-B;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422.

32) Stephen J. Chester,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427.

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스터가 검토하지 않았던 증거본문들도 있다. 체스터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의 본문을 증거로 제시할 때 델피와 도도나의 예언 활동만 언급했지만, *μανία*의 상태가 다방면의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이어지는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첫째, “작명을 했던 고대인들은 *μανίαν*을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이 단어를 미래를 예언하는 가장 고귀한 예술인 *μανικὴν*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지 않았을 것이다.”³³⁾ 둘째, “고대인들은 이름과 사실 면에서 비교했을 때 *μαντική*가 점술(*augury*)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비율이라면 신으로부터 온 *μανίαν*이 인간에서 기원한 온전한 정신(*sanity*)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선언했다.”³⁴⁾ 셋째, 병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μανία*를 가진 사람은 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현재 상태에서 안전을 유지하기도 했다.³⁵⁾ 넷째, 또한 *μανία*는 예술 활동에 영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했다. 그것은 “뮤즈로부터 나와서 온순하고 깨끗한 영혼을 사로잡아 그것을 깨우고 영감을 불어넣어서 노래와 시를 만들어냈다.”³⁶⁾ 다섯째, 이 외에도 소크라테스는 *μανία*가 다른 영역에서 유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여럿 제시한다.³⁷⁾ 여섯째, 이렇게 *μανία*가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열거한 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언급한 영감 받은 *μανίας*의 고귀한 결과물이다. 물론 더 많은 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이성적인 친구가 열광적인 상태에 있는 친구보다 더 낫다네’라고 말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이러한 *μανία*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증거는 단순한 영리함[이성을 가리킴]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μανία*를 가리킴]를 통해 받는 것이다.³⁸⁾

*μανία*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소크라테스만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다. 고대 시인 에우리피데스(*Euripides*)는 *μανία*의 유익이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신이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그는

33) Plato, *Phaedr.* 244C (Fowler, LCL).

34) *Ibid.*, 244D.

35) *Ibid.*, 244E.

36) *Ibid.*, 245A.

37) *Ibid.*, 241A, 256D, 266A.

38) Plato, *Phaedr.* 245B (Fowler, LCL).

열광의 상태에서(in madness) 미래를 예언한다.”³⁹⁾ 열광의 상태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서 “왕의 통치권”보다도 우월하다고 말했다.⁴⁰⁾

바울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필론(Philo) 역시 *μανία*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필론은 자신의 책에서 황홀경(*ἔκστασις*)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황홀경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망상을 동반하는 광포”의 형태로, 다른 경우에는 “갑자기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심하게 놀라는 형태”로, 또 다른 경우에는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passivity of mind; ἡρεμία διανοίας*) 형태로 나타나는데 … 이 중 최고의 상태는 예언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신들린 상태 혹은 *μανία*의 상태다.”⁴¹⁾ 이 중 마지막 형태에서 사용된 *μανία*라는 표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추측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단서가 이후 논의에서 등장하는데, 필론은 세 번째 형태의 황홀경에 대해 부연하면서 빛의 비유를 든다. “마음의 빛이 여전히 우리 주위를 비추면 우리는 자기충족적인 상태이고 … 신이 임한 상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의 빛이 없어지면 황홀경과 신들림, 그리고 *μανία*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인간의 빛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인간의 빛이 밝아 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⁴²⁾ 필론의 도식에 따르자면, 마음이 작동할 때는 여전히 인간이 통제하는 상태이고, 마음의 작동이 중지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난다. 황홀경, 신들림, 그리고 *μανία*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표현들이다. *μανία*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μανία*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용례는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례를 더 많이 축적한다고 해도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고대인들이 *μαίνεσθε*와 그 동족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μαίνεσθε*와 그 동족어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⁴³⁾ 하지만 이 단어군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모두 해석 가능하다면 문맥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장

39) Euripides, *Bacchae* 301 (Kovacs, LCL).

40) Ibid., 310-311.

41) Philo, *Heir* 249 (Colson and Whitaker, LCL).

42) Ibid., 264.

43) 부정적 해석의 용례를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Gorgias, *Testimonia* 24; Xenophon, *Memorabilia* 3.12.6; Aristotle, *Physiognomics* 808b.20; Dio Chrysostom, *Discourses* 38.17; Plutarch, *Moralia* 503E; Philostratus the Elder, *Imagines* 2.23.1.

들에서 우리는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구약의 원 문맥과 고린도전서의 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더 낫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mu\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를 긍정적으로 번역한다면 현재 한글 성서에 나온 “너희가 미쳤구나”라는 부정적 번역보다는 “너희가 영감을 받았구나”(you are inspired) 혹은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you are possessed by god)와 같은 긍정적 뉘앙스의 번역이 더 합당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4:20-25의 세 가지 해석학적 난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위에서 검토한 주요 논지를 단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요 논지를 성실히 반영한다면 현재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20-21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의미: 이 두 절은 고린도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이사야 원 문맥도, 고린도전서의 전 문맥(14:1-19)도 그 권면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미성숙한 신자이다. 그렇다면 20-21절의 주된 관심은 방언이 신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을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공동체에게 두루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린도교인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방언보다는 예언을 추구해야 한다.

22-25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22상 전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22상 후반)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22하)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μᾰίνεσθε)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의미: 22절에서 핵심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전통적 해석과 달리 필자는 표적을 짚은 문맥 안에서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언과 예언의 긍정적인 정도의 뉘앙스가 다르다. 방언의 경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표적이고 예언의 경우는 온전히 긍정적인 표적이다.

그렇다면 22절의 방언과 예언의 원리는 20-25절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22상반절 전반부는 20-21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2상반절 후반부는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 긍정적 표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표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23절의 $\mu\alpha\acute{\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가 일차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라고 고백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2하반절에 표현된 예언의 원리(예언은 신자를 위한 표적)는 24-25절의 예시(예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와 일견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4-25절의 상황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간에 예언을 하는 장면을 불신자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언은 일차적으로 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신자들이 하게 될 고백의 내용(“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역시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예언이 신자를 위한 표적임이 확증된다. 그렇다면 24-25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예언은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자도 고백할 만큼 강력한 표적, 즉 온전히 긍정적인 표적이라는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예언, 표적, $\mu\alpha\acute{\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1 Corinthians 14, speaking in tongues, prophecy, sign, $\mu\alpha\acute{\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참고문헌>(References)

- Aristotle, *Minor Works: On Colours, On Things Heard, Physiognomics, On Plants, On Marvellous Things Heard, Mechanical Problems, On Indivisible Lines, The Situations and Names of Winds, On Melissus, Xenophanes, Gorgias*, W. S. Hett, trans., LCL 30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 Chrysostom, Dio, *Discourses 37-60*, H. Lamar Crosby, trans., LCL 3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46.
- Euripides, *Bacchae, Iphigenia at Aulis, Rhesus*, David Kovacs, trans., LCL 49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Georgias, et al., *Early Greek Philosophy, Volume VIII: Sophists, Part 1*. André Laks and Glenn W. Most, trans., LCL 53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 Philo, *On the Confusion of Tongues, On the Migration of Abraham, Who Is the Heir of Divine Things? On Mating with the Preliminary Studies*, F. H. Colson and G. H. Whitaker, trans., LCL 26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
- Philostratus the Elder, Philostratus the Younger, Callistratus, *Philostratus the Elder, Imagines, Philostratus the Younger, Imagines, Callistratus, Descriptions*, Arthur Fairbanks, trans., LCL 25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
- Plato, *Euthyphro, Apology, Crito, Phaedo, Phaedrus*, Harold North Fowler, trans., LCL 3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
- Xenophon, *Memorabilia, Oeconomicus, Symposium, Apology*, E. C. Marchant and O. J. Todd, trans., LCL 16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 바클레이, 존 M. G., 『단숨에 읽는 바울』, 김도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Billings, Bradley S., “The *apistoi* and *idiotes* in 1 Corinthians 14:20-25: The Ancient Context and Missiological Meaning”, *ExpTim* 127:6 (2016), 277-285.
- Carson, D. A., *Showing the Spirit: A Theological Exposition of 1 Corinthians 12-14*,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 Chester, Stephen J., “Divine Madness? Speaking in Tongues in 1 Corinthians 14.23”, *JSNT* 27:4 (2005), 417-446.
- Collins, Raymond F., *First Corinthians*, SP 7,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 Garland, David E.,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Grudem, Wayne, “1 Corinthians 14.20-25: Prophecy and Tongues as Signs of God’s Attitude”, *WTJ* 41:2 (1979), 381-396.
- Hays, Richard B., *First Corinthian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7.
- Horsley, Richard A., *1 Corinthians*, ANTC,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Johanson, B. C., “Tongues, A Sign for Believers?: A Structural and Exegetical Study of I Corinthians XIV. 20-25”, *NTS* 25 (1979), 180-203.
- Johnson, Alan, *1 Corinthian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 Kwok, Hon Lee, “Use of Isaiah in the Pauline lett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Self-conception of Being an Apostle to the Gentile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09.
- Lanier, David E., “With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1 Cor 14:20-22 and Isa 28:11-12”, *CTR* 5 (1991), 259-285.
- Lockwood, Gregory J., *1 Corinthians*,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0.
- Roberts, P., “A Sign — Christian or Pagan?”, *ExpTim* 90 (1978), 199-203.
- Stanley, Christopher D., *Paul and the Language of Scripture: Citation Techniqu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SNTSMS 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Soards, Marion L., *1 Corinthians*, NIBCNT, Peabody: Hendrickson, 1999.
- Sweet, J. P. M., “A Sign for Unbelievers: Paul’s Attitude to Glossolalia”, *NTS* 13 (1967), 240-257.
- Thiselton, Anthony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00.
- Witherington, Be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1 and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Abstract>

**“You Are Mad” or “You Are Inspired”?:
Reconsidering the Translation of $\mu\acute{\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in 1 Corinthians 14:20-25**

Youngju Kwon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Although the overall argument of 1 Corinthians 14 is clear, verses 20-25 are full of exegetical cruxes. Any interpreter dealing with this passage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three exegetical problems. First, Paul uses Isaiah 28:11-12 in order to provide pastoral advice to the Corinthian believers who prioritize speaking in tongues over prophecy. The problem is that it is hard to determine how the context of Isaiah fits with the Corinthian situation. Second, Paul's principle about speaking in tongues and prophecy in verse 22 (i.e., speaking in tongues is helpful for unbelievers while prophecy believers) seems contradictory to his illustrations in verses 23-25 (i.e., what is useful for unbelievers is not speaking in tongues but prophecy). Third, one should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translate $\mu\acute{\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the response that unbelievers may have if they see believers speaking in tongues. The critical issue is whether the word should be translated negatively or positively.

The present study revisits these three exegetical problems in turn and then argues that $\mu\acute{\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should be translated positively. The traditional position on this issue is that the word should be translated negatively, namely, “you are mad” or “you are out of mind.” However,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traditional position does not properly consider both the context of Isaiah and the immediate context of our passage (1Co 14:1-19). If we reflect these contexts and the wider literary context where $\mu\acute{\alpha}\iota\nu\epsilon\sigma\theta\epsilon$ was used, then it is more proper to translate this word positively, namely, “you are inspired” or “you are possessed by God.”